

교부들의 성경해석 채승희 박사

성경해석법의 유대적 배경

01



김창선 교수의 “성서의 배경사” 연재에 이어
이번 호부터는 채승희 박사의 “교부들의 성경해석”이라는
제하의 연재를 시작한다.

기독교 초기 교부들의 성경해석 방법과
그 구체적인 내용 및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한국교회의 성경해석을 돌아보고,
관련 분야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줄 이번 연재에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편집자)

성경해석법의 유대적 배경

채승희 << 장로회신학대학교 강사 / 역사신학

왜 어떤 문헌들은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거룩한 책(성서)으로 받아들여졌고 다른 문헌들은 거룩한 책에서 배제되었는가? 이 문제는 초대교회가 도전 받고 씨름한 신학과제들과 분리되지 않는다. 초대교회는 예수를 구주로 따르는 신앙공동체가 무엇을 믿고 가르치며 고백하는지를 교리적으로 공식화할 필요를 느꼈다. 초대교회는 내부적으로는 수많은 이단들의 공격으로부터 복음의 내용을 정립하기 위해, 그리고 밖으로는 세속권력의 박해(물리적 박해와 문리적 박해 모두)에도 불구하고 유기적 통일체로서 그 생명력을 놓치지 않고 교회를 결속하기 위하여 그들이 믿는 바를 교리적으로 표명해야 했던 것이다. 신조를 공식화하고 사도계승에 뿌리를 둔 신앙의 규범을 정하고, 거룩한 책들을 선별하여 정경을 완성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교리적 표명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교회”(가톨릭)가 탄생하였다. 이것은 초대교회가 이룩한 가장 큰 공헌일 것이다. 만약 교리적 틀이 정립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으로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하여 초대교회가 가르치고, 믿고, 고백한 바를 신학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오고가는 세대에 분명한 기독교의 정체성을 그려 놓았다.

필자는 초대교회가 이룩한 공헌들 중 그들의 성서해석에 초점을 맞추어 보고자 한다. 예수와 그를 따르던 첫 세대들이 역사의 뒤로 물러간 후 풍부한 지성과 영성, 도덕성으로 존경받은 교부들(속사도 교부들 포함)은 성경의 변증과 주해, 성경의 신학적 논쟁들을 설명하고 해결해 가는 직무를 수행했다. 성경은 모든 교리 작업의 과정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준이었다. 그러므로 성경을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는 절대적 권위의 책으로 이해하고, 성경의 내용들을 기독교적으로 해석해 가야 하는 것은 초대교회 교부들이 직면한 중요한 신학적 과제였다. 그들은 성경해석의 방법들(성경해석의 원칙과 규칙들)을 발전시켰다. 성경해석의 방법에 따라 이해된 성경은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들과 일치하였고, 이제 예수 공동체를 든든히 받쳐 주는 최고의 권위로서 인정받게 되었다. 초대교회가 어떤 특정한 책들에 특별한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그들이 성경이 되었는지, 아니면 어떤 책들이 성경으로 특별한 권위를 가지므로 교회가 후에 이들을 ‘정경’으로 공식 인준하였는지는 가끔 논란이 되곤 한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양쪽 모두가 인정하는 것은 정경으로 권위가 부여된 책들은 그들의 본래적 가치가 인정되었기 때문임에는 틀림이 없다는 사실이다. 초대교회의 교리들은 성서의 범위 안에서 형성되었고, 역으로 교회는 그들이 이해하는 신학의 범주에 맞는 책들을 모으고 배열하여 이를 정경이라 일컬었다. 양 방향의 상호 작용은 어느 한쪽으로도 무게와 가치가 기울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초대교회의 성경해석의 역사적 고찰이 갖는 공헌은 클 것이다. 이는 초대교회가 가졌던 신학의 과제가 오늘날 신학과 목회의 장과 분리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이다. 초대교회 안에 범람하던 이단들의 주장들(이르테면 구약의 폐기론, 신구약 내용의 개연성의 질문 등)과 같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만연한 세속화의 물결(과학적 사고와 물질주의적 세계관, 상대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은 성경의 경전으로서의 가치와 권위에 같은 맥락으로 도전한다. 이 글에서 필자는 먼저 유대인들의 성경해석법의 기초들을

간략하게 살펴 볼 것이다. 랍비들의 성경해석방법이나 헬라 유대철학자 필로(Philo)의 성경해석은 초기 기독교인들의 성경 이해에 기초를 제공한다. 다음으로 초대교부들의 성경해석법을 시대별로 주요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바울의 성경해석부터 2세기 성경해석(저스티누스, 이레니우스, 테르툴리아누스), 3-4세기 성경해석(오리겐, 아우구스티누스, 몹수에스티아의 디오도르)까지 살펴볼 것이다. 초대교회 교부들의 성경해석방법은 오늘 우리교회가 회복해야 할 믿음의 고백들과 신앙에 한결음 더 가까이 우리를 인도하리라 믿는다.

I. 초대교회의 성경

1. 구약성경

처음부터 기독교는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경전을 교회의 성경으로 사용하였다. 예수와 사도들은 자신들의 사역 가운데 구약성경을 자유롭게 사용하여(예. 마 4:4, 19:7; 눅 24:44; 행 2:16)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기원하고, 그러므로 구약성경과 기독교의 메시지는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구약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배우고 읽고 공부하였음은 많은 교부들의 글에서 자명하게 드러난다. 실례로 저스틴의 글이나 『디다케』는 초대교회 예배를 이루는 예식기도, 봉독, 권면, 성찬에 있어 구약성경이 풍부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¹⁾ 초대교회에서 신약성경이 아직 정경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때에 구약성경은 가장 권위 있는 성경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문제는 초창기 기독교가 태동되던 시기까지 유대교를 획일적으로 표현하는 통일된 구약성경

1) Justin, *I Apology* 67.3; *Didache* 9.2, J. Pelikan, *The Emergence of the Catholic Tradi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1971), 59에서 재인용.

이 존재했던 것이 아니므로 기독교에 영향을 준 구약성경이 무엇이었는가는 중요한 이슈이다.

초대교회 당시, 1-2세기에 존재하던 구약성경은 두 종류로 소급될 수 있다. 하나는 순수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히브리 성경이며, 다른 하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해 헬라말로 번역된 70인역이다. 정경화된 히브리 성경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주후 66/70년 이후이다. 1세기 말엽, 약 주후 95/100년경 유대 랍비들이 팔레스틴 연안의 얌니아(Jamnia)에 모여 유대인들의 정경을 확정하였는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율법서(*torah*), 선지서(*nēbi'im*), 성문서(*ketubim*)로 구성된 24권의 책(현재 39권의 책들)을 엮어 최종적으로 정경화 작업을 마쳤다고 기록한다.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고 유리하며 박해받는 민족의 아픔을 달래며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이 필요했던 것이다. 얌니아에서 결정된 구약성경은 지극히 바리새적이다. 주전 168년경 셀주크 왕조 때 하시딤 가문의 마카비형제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의 반-헬라 저항운동이 발발하였다. 이 때 유대인들은 긴박한 종말 사상에 몰두하였고 이와 연루된 묵시문학 책들이 많이 지어지고 읽혀졌다(예. 다니엘서). 이러한 묵시적 사상은 마카비 후 세대의 에세네파와 같은 분파적 성향을 가진 유대공동체들에게 더 영향력 있는 책이 되었다. 그러나 전쟁이 단락 지워지고 하스몬 왕가의 출현과 계승이 이어질 때 친-헬라적 성향의 사두개인들은 그 어떤 책들보다 토라만을 중심적 권위의 책으로 받아들였으며 토라 외 묵시적 책이나 성인록 같은 책들은 배제시켰다. 바리새적이기는 하지만 얌니아의 결정은 이상의 다양한 유대 그룹들의 신앙적 견해들을 최대한 수용하고 통합하려는 노력을 보인 데 중요성이 있다.²⁾

70인역은 주전 3세기부터 전해지는 헬라어 구약성경 번역본으로서 약

2) Karlfried Froecllich, trans. & ed., *Biblical Interpretation in the Early Church* (Philadelphia: Fortress, 1984), 2-3.

니아 구약성경의 책들과는 그 내용들과 배열에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여기에는 유대인들의 경전보다 소위 외경(Apocrypha)으로 불리는 책들이 추가되어 있고 그 배열에 있어서도 히브리인들의 성경과 사뭇 다르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주후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 법령 47항에 초대교회가 정경으로 채택한 구약과 신약의 목록을 나열하면서 교회의 정경을 공포하였다. 이 공의회에서 결의한 구약정경은 암니아 회의의 히브리성경이 아닌 70인역을 따르고 있다.³⁾ 솔로몬의 지혜서와 같은 문헌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결코 경전에 들 수 없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공의회는 70인역을 따라 이를 경전에 포함하고 있다.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헬리어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에서 (대체로 로마제국의 테두리 내) 함께 살았으며 공통적으로 구약성경을 경전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구약성경은 유대인들과 그리스도교인들을 전혀 다른 세계로 인도하게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을 철저히 예수의 성육신과, 삶, 죽음과 부활을 예시하고 증언한다고 믿었고 예수는 구약에 나타난 모든 예언들의 성취이며 완성으로 보았다. 그러한 기독교적 조명으로만 구약성경을 정경으로 읽고 받아들였다.⁴⁾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힌 성경으로부터 초대교회는 기독교의 교리와 신학을 정교하게 발전시켜 나갔다.

3) B. M. Metzger, *The Canon of the New Testament. Its Origin, Development and Significance* (Oxford: Clarendon Press, 1969), 315.

4) 초대교회에서 구약성경이 기독교 성경으로 아무런 제제 없이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 반대자들은 구약이 예언한 바로 그 분이 오셨으므로 더 이상 구약이 기독교 성경으로서 가치가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무리도 있었다. 극단적인 입장은 (이를 테면 마르시온) 구약은 신약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치부하였다. 터툴리안에 의하면 터툴리안 당시(2세기 어느 때) 구약성경이 기독교 성경의 일부임을 부인하면서 구약성경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이들이 존재했다고 하였다. Tertullian, *Against Marcion*. 5.20.2 (CCSL 1: 724).

2. 신약성경

구약성경이 유대교의 유산으로 물려받았다고 한다면 신약의 책들은 갓 태어난 기독교 공동체로부터 시작된다. 그리 오래지 않아 사도들이나 사도들의 공동체로부터 직접 전수된 복음서나 서신서들, 혹은 첫 세대 제자들의 증언들을 담은 내용의 글들이 전수되고 예배와 기도에서 사용되었고 이들은 구약과 같은 권위의 자리에 놓이게 되었다. 1, 2세기 속사도 교부들의 글들(예. 로마의 클레멘트, 폴리갑, 저스틴, 이레니우스, 테르툴리아누스)에서 신약성경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권위적 책으로 동의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문제는 어느 범위까지 성경으로 간주하느냐에 있었다. 많은 속사도 교부들의 글들, 이를테면 **헤르마스의 목자**, 로마의 클레멘트의 **고린도전후서**, 이그나티우스의 **일곱 서신들**, **바나바의 서신** 등 여러 책들이 초대교회 내에서 자유롭게 성경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더욱이 2세기 기독교 공동체는 영지주의적 복음서들과 묵시서들이 교회에 들어와 만연한 인기를 누리기도 했다(예. 도마복음, 이집트인의 복음, 진리의 복음 등).⁵⁾ 사도적 문헌들을 기준으로 권위적 성경을 삼는다면 사도들의 이름으로 지어진 가(假)-복음서 내지는 행전들의 경계가 모호해지므로 교부들은 진(眞)과 가(假)를 구분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였다. 진(眞)과 가(假)의 구분뿐 아니라 성경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시키는 마르시온과 같은 그룹들이 나타나 구약의 전면 폐지와 신약을 10개의 바울서신과 누가복음의 특정 부분만을 경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⁶⁾

5) Basilides of Alexandria, Antoninus Pius, Valentinus가 그 대표적 기독교 영지주의자들이며 대부분의 기독교 영지주의 작품들이 1945년 이집트에서 발견된 Nag Hammadi 문서에 나타난다. Cf. Irenaeus, *Against Heresies; The Nag Hammadi Library in English*. 4th rev. ed., James M. Robinson. gen. ed. (New York: E. J. Brill, 1996).

6) A. von Harnack, *Marcion. Das Evangelium vom fremden Gott*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reprint. 1996), 168.

여러 도전들에 대한 대응으로 교부들은 나름의 신약성경의 목록들을 정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기본적으로 교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사도성’에 부합해야 하고 교회 공동체가 보편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경을 엄선하였다. 최초로 선별된 신약성경 책들의 묶음은 무라토리 성경으로 2세기 로마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진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요한의 3편지를 제외하고 오늘 우리의 신약성경과 같은 목록을 포함한다. 393년 히포의 공의회와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지금의 27권의 성경과 동일한 신약성경을 경전으로 인정하였다. 구약성경이든 신약성경이든 초대교회에 주어진 성경은 예수의 성육사건과 고난, 부활영광의 증인 그 자체로 읽혀졌다. 구약성경은 예수의 삶과 사역을 낱낱이 예시한 것으로, 복음서는 예수의 가르침을, 그리고 서신서들은 예수의 고난과 영광에 대한 권위 있는 해석으로 이해하였고 이는 초대교회의 신학이며 영성이었다.

II. 성경해석법의 유대적 배경

1. 유대인들의 성경해석

유대인들의 성경해석법은 유대인들의 신학적 틀 안에서 자신들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성경이 읽혀야 한다는 목표의식 안에서 이루어졌다. 랍비들, 쿰란공동체, 디아스포라 유대주의의 다양한 줄기들은 유대적 성경해석법의 발전에 공헌한 주요 그룹들이며 이들은 초대교회 성경해석방법들의 중요한 사상적 배경이 된다.

2. 랍비들의 성경해석

랍비식 성경해석은 유대주의의 성경해석의 주류라고 할 수 있다. 랍비들에게 성경은 유대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기록된 것으로 이해되었다. 오랜 기간을 거치면서(에즈라 귀환, 마카비 혁명 등의 시간을 지나면서) 토라에 대한 해석들이 구전으로 풍부하게 전해져 내려왔고 이들은 점진적으로 기록문헌, 즉 미쉬나(Mishnah), 게마라(Gemara), 탈무드(Talmud) 같은 책으로 만들어졌다. 성문화 과정에서 랍비들은 구전전통과 성문화된 율법은 과연 통일성을 가지는가? 그들이 얼마만큼 토라로서 권위를 가지는가? 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첫째, 성경해석의 기본 원리로서 랍비들은 성경의 모든 글들이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계약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본문과 유대전통과의 관계, 그리고 율법을 현재 삶의 자리에 적용함에 있어 가장 절실하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모세와 함께 시내산 계약에서 보인신 하나님의 계시대로 수렴되게 하고 거기로부터 해석되고 읽혀야 한다는 것이다. 시내산 계약은 랍비들의 성경해석의 핵심적 원리가 되었다.

둘째, 미쉬나가 기록된 것이 유대인들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후대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진정으로 기록된 구전 율법들로서 진정성을 나타내기 위해 랍비들은 자신들만의 성경해석 규칙들(*middot*)을 만들었다. *Sifra*⁷⁾를 통해 랍비 이스마엘(Rabbi Ishmael)은 이러한

7) 4세기 말에 팔레스타인에 있던 현인(賢人)들이 레위기에 관한 미드라쉬 주석서를 편찬하여 부른 것이다. *Sifra: Der älteste Midrasch zu Levitikus*, ed. by M. Friedmann, Schriften der Gesellschaft zur Förderung des Judentums Breslau (M. and H. Marcus, 1915). 본인은 원 자료의 영문 번역을 많이 참고하고 있음을 밝힌다. Karlfried Froehlich, *Biblical Interpretation in the Early Church*, 30-36.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한 규칙들(*middot*)을 제시한다.⁸⁾ 랍비 이스마엘의 해석법은 랍비적 성경해석법의 대표 격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1-2세기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성경해석의 정신적 기초를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랍비 이스마엘의 13가지 성경해석법은 다음과 같다.

1. Kal VaChomer: 가벼운 데서 무거운 것으로 적용되는 규칙을 말한다. 만약 어떤 규율이나 사실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에 적용되어 있다면 적용된 상황보다 더 강도가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적용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문둥병이 발한 미리암에 관하여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르기를 “그녀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민 12:14)하고 하였다면 하나님이 그녀를 부끄럽게 할 경우에는 더더욱 큰 수치를 겪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바로의 경우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2. Gezerah shavah: 말의 유사성에 관한 원리로서 유사한 주제나 말들은 원래 여러 곳에서 다른 관점을 갖고 사용되었다고 봐야 한다. 각각의 주제나 말들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사용되었으나 전해 내려오는 과정에서 함께 묶였을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 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출 22:8)의 구절에서 재판장 앞에 가서 조사를 받는 자는 배상을 받고 물품을 지킨 사람과 배상을 받지 않고 이웃의 물품을 지킨 자의 각각

8) Rabbi Ishmael의 13가지 해석법은 주전 30년경 유명한 Rabbi Hillel의 7 middot을 발전시킨 것이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E. C. Blackman, *Biblical Interpretation*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57), 72-73.

의 경우에서 나온 서로 다른 율례들이 하나의 것으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쉬운 예로 신명기 24장 1-2절의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 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라는 구절은 모세의 이혼법과 결혼법과 같은 각각 다른 법에서 사용된 구절들을 한곳에 모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3. Binyan Ab & 4. Kelal uPerat: 성경의 한두 구절들이 대표적으로 사용될 때가 있다. 이를테면 성경의 한 구절이 유월절에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허락된다고 가르치면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많은 명절에도 마찬가지로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토라는 어떤 자의 소가 상해를 입었다면 그 소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가르친다. 이 말은 소가 있는 장소, 때, 상해 내용 전반에 모두 적용됨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해야 한다. 등잔에 관한 규례(레 24:1-4)와 부정한 자의 규례(민 5:1-4)가 전혀 다른 내용이지만 즉각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command)으로 오고가는 세대 모두에 거시적으로 적용되는 의미로 통일성을 갖는다는 주장이다.

5. From a generality followed by a specific: 구체적인 언급은 일반적 언급으로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출 22:10)에서 언급된 나귀, 소, 양과 같이 구체적 종류의 짐승들 뒤에 일반적 개념의 ‘다른 짐승’이 따라오는 것은 ‘모든 짐승’을 지칭하는 성경적 표현법이다.

6. Kelal uPerat ukelal: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 갑절을 배상할지니라”(출 22:9) 같이 일반적 개념 뒤에 구체적인 것과 일반적인 것이 동시에 이어 나올 때

가장 뒤에 나오는 일반 개념은 본문의 내용과 무관할 때가 많다. 이는 단지 상징에 불과하다. 즉, 도둑질한 자가 소, 나귀, 양, 의복(앞부분에 나오는 일반 개념을 해석해서 이에 준하는 것들을 포함함)에 대해서는 두 배로 배상을 해야 하나 뒷부분의 일반개념, 아마도 부동산과 같은 추상적 개념의 물질에 대해서는 2배의 보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7. kelal shehu tzerik lefrat: 일반개념은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며 구체적 개념은 일반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출 13:2)의 구절을 이해할 때 처음부터 ‘처음 난 것’(일반적 개념)에서 여자 아이(짐승의 경우 암컷)가 배제 된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누구나 암컷이든 수컷이든 ‘처음 난 자(것)’이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성경은 12절을 통해 율법적으로 구분되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 오직 남자(수컷)에만 해당됨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율법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처음 난 자’는 남성에 국한시킨 장자를 뜻하게 된다.

8. 일반적 원리이면서 어떤 특정한 점을 교훈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을 읽는 자는 그 구절이 사용된 상황에서만 국한 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이를테면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레 7:20)라는 구절에서 화목제물은 일반개념의 카테고리 해석해야 한다.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번제제물의 고기를 ... 혹은 속죄제물의 고기를, 소제제물의 고기를 ...”의 구절을 읽는 자는 본문에 나열된 제물의 고기 종류를 모든 제물의 고기로 읽고 깨달아야 한다. 유의해야 할 것은 특정 교훈을 위해 일반적 개념을 구체화시켜 사용한 구절은 일반 개념으로 확대해서 해석하면 안 된다.

9. 일반적 원리이면서 그 원리와 연관되면서도 어떤 새로운 다른 교훈을 부여하기 위해 그것이 다시 사용되었다면 그것은 기존의 일반적 원칙보다 더 엄격하고 엄중한 교훈보다는 자비로우며 관대한 교훈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출애굽기 21장 12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에서는 사형을 구형할 대상은 살인한 자이며 그가 의지로 살인을 했든, 부지중에 살인을 했든 구분되지 않는다. 그러나 곧 이어 13절에 부지중에 살인한 자에게는 사형을 내리지 말 것을 언급하고 또한 나아가 도피처로 피신할 것을 권한다. 이처럼 살인자에 대한 원칙이 한 번 더 계속 반복 부연 설명된 것은 자비와 은혜를 목적으로 한다. 레위기 13장은 피부에 생긴 병에 대한 진단이다. 나병을 진단하는 맥락에서 24절은 불에 덴 흔적을 나병과 혼돈하지 않기 위한 진단을 삽입한다. 이는 나병환자를 부정하다고 판정하기 위한 목적보다 나병이 아닌 자를 찾아 자유를 주고자 하는 목적이 우선이다.

10. 일반적 원리이면서 그 원리와 연관되지 않는 어떤 새로운 다른 교훈을 부여하기 위해 그것이 다시 사용되었다면 그것은 기존의 일반적 원칙에서 짐을 가볍게 하거나 혹 더 무겁게 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8번의 경우와 연결해서 29절은 여자의 머리카락이나 남자의 수염에 환부를 찾아보는 구절이다. 머리카락과 수염은 일반적 개념으로 피부병을 진단하는 전체의 흐름과 무관하게 보인다. 그러나 머리카락과 수염의 환부를 언급함으로써 그 판단은 경우에 따라 더 엄해질 수도 약해질 수도 있음을 보인다.

11. 일반적 원리이면서 전혀 새로운 주제를 위한 개념을 세우기 위해 사용되었다면, 그 후 성경이 명백히 명하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원래의 일반적 개념으로 돌아갈 수 없다. 레위기 14장 13-14절에 기록된 속건제물에 관한 규례는 일반 속건제의 규례와 다르다. 본 주절은 문동병자에게

적용되는 특별한 속건제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13절은 여기에 사용된 속건제물이 속죄제물과 같은 레라고 언급하면서 그 나머지 규례가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피를 바를 것을 명하고 있다.

12. 맥락(context)을 고려해서 결론을 이끌어 갈 필요가 있다. 제8계명인 “도적질하지 말라”는 물건을 훔치는 것을 금하는지 혹은 사람에게 관계된 도적질(예. 유괴나 납치)을 금하는지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해석의 원리에 의하면 전후의 문맥에서 그 이전의 것(제6, 7계명)이 모두 사람에게 관한 계명이므로 여기서 도적질은 사람을 훔치는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물건에 대한 도적질은 제 10계명에 언급되어 있다.

13. 서로 상치되는 두 구절의 해결은 이어지는 제3의 구절에 의해 화해된다. 창세기 1장 1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전하며, 같은 책 2장 4절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천지창조 과정은 땅을 먼저 만드시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하늘과 땅의 창조의 시기에 대해 이사야 48장 13절의 말씀으로 평정된다.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펴나니 ...”

랍비 이스마엘의 성경해석법(*middot*)은 이전의 유대적 성경해석법을 참고하고 종합한 것으로 그 중요성을 더 한다. 그의 성경해석법의 목적은 뚜렷하다. 해석법이 필요한 것은 유대민족이 선민의 삶을 매일 매일 살면서 일어나는 법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율법이 유용하게 활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질적 삶으로의 적용을 위해 토라의 구성과 수사적 기법이 풀려야 하고 논리적인 문맥의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랍비 이스마엘은 성경이 문자 위에 감추어진 신비적 계시임을 강조하는 자들과 의견을 달

리하며 율법은 인간의 언어로 인간을 위해 쓰인 글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그의 해석법은 곧 이어지는 세대에서 성경의 문자 안에 감추어진 더 깊고 심오한 신비적 의미를 찾고자 하는 랍비식 은유해석주의(rabbinical allegorism)에 의해 보충된다.

:: **채승희** 경북대학교(B.S.)와 장로회신학대학교(M.Div.)를 나와 미국 Fuller Theological Seminary(Th.M.)와 Union Theological Seminary-PSCE(Ph.D.)에서 역사신학을 공부했다. 현재는 가나안교회(분당 구미동) 부목사이며, 장로회신학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신학교에 출강하고 있다.